



싱가포르에서 공개되는 더 컬렉터블 컬렉션의 세 번째 캡슐

더 컬렉터블 북에 포함된 10 가지 빈티지 타임피스

주요 특징:

- 많은 사랑을 받은 진귀한 남성 및 여성용 타임피스 10 점으로 구성된 컬렉션
- 20 세기 워치메이킹의 '황금기'를 보여주는 레퍼런스 북
- 아시아 최초로 새로운 컬렉터블 캡슐 출시

예거 르쿨트르는 50 년간 이어진 20 세기 워치메이킹의 황금기(1920 년대-1970 년대)에 매뉴팩처에서 생산했던 진귀하면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모델들을 엄선한 더 컬렉터블의 세 번째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남성 및 여성용의 탁월한 타임피스 10 점으로 구성된 세 번째 캡슐 컬렉션은 2024 년 10 월 싱가포르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발레드주에서 첫 번째 컬렉션을,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번째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싱가포르의 열정적인 시계 컬렉팅 커뮤니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싱가포르에서 세 번째 더 컬렉터블 컬렉션을 공개합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 탁월한 타임피스와 마스터 레퍼런스 북

매뉴팩처 창립 190 주년을 맞아 출시된 더 컬렉터블은 그랑 메종의 핵심적인 시계 중 하나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집가를 비롯하여, 메종뿐만 아니라 워치메이킹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했던 시기에 관한 지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애호가들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판매용으로 출시된 캡슐 워치 컬렉션을 보완하는 *더 컬렉터블* 커피 테이블 북은 매뉴팩처가 1920 년부터 1970 년대까지 생산한 17 가지 주요 모델을 보여주는 레퍼런스 북입니다. 더 컬렉터블 프로그램으로 판매되는 모든 워치는 이 커피 테이블 북에서 다루고 있는 17 개의 모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랑 메종을 이끌어온 개척 정신을 기념하는 *더 컬렉터블*은 듀오플랜, 리베르소, 메모박스, 퓨처매틱, 지오피직과 같은 혁신적인 모델에 주목합니다. 각 챕터를 통해 총 17 개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생산 연도, 시계에 사용된 무브먼트와 케이스 메탈, 다이얼 종류 등 수집가를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부 사진과 함께 매뉴팩처 아카이브의 역사적 문서 사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컬렉터블* 북은 수집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시계가 탄생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대한 배경 이야기도 포함하고 있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어진 현대 기계식 시계의 발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선사합니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10 가지 타임피스 컬렉션

10 가지 위치로 구성된 세 번째 캡슐 컬렉션은 남성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다이얼의 진귀한 리베르소와 메모박스부터 1970 년의 마스터 마리너 딥 씨, 1945 년의 트리플 캘린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던 클래식 모델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컬렉션에는 파워매틱의 초기 모델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획기적인 제품이 더 컬렉터블을 통해 판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파워매틱이 등장한 1949 년에 출시된 이 위치에는 '범퍼' 오토매틱 와인딩 시스템과 통합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예거 르쿨트르에서 발명 및 특허 취득)를 갖춘 칼리버 481 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시 높은 정확성으로 유명했던 파워매틱은 출시되자마자 메종의 상징적인 위치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탁월한 여성용 모델은 기술적 정교함과 뛰어난 디자인을 결합하려는 그랑 메종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1933 년 출시된 듀오플랜 쿨리상뜨(Duoplan Coulissante)는 다이얼을 숨기거나 보여주는 슬라이드 커버가 달린 골드 케이스에 2 단계의 듀오플랜 칼리버(전례 없는 수준의 소형화를 가능하게 함)를 탑재했습니다. 1934 년 여성용 리베르소는 스틸 케이스와 눈길을 끄는 세련된 초콜릿 컬러 다이얼이 특징입니다. 유연한 골드 브레이슬릿에 장착된 1938 년의 칼리버 101 모델은 세계적으로 매우 작은 핸드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 중 하나를 아방가르드 디자인에 장착함으로써 아르데코에서 1940 년대를 정의하는 더욱 조각적인 형태로의 전환을 알렸습니다.

다른 하이 디자인 제품으로는 터콰이즈 다이얼과 베젤이 장착된 1970 년 메모박스 폴라리스 II 와 별갑과 비슷한 파티나가 돋보이는 독특한 브라운 래커 다이얼로 '브라우니'라는 별명이 붙은 1969 년 메모박스가 있습니다.



역사적 본질을 보존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인증 및 복원된 컬렉션

모든 타임피스에는 메종의 역사 전문가들의 심층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정됩니다. 매뉴팩처의 복원 워크숍에 소속된 워치메이커들은 해당 타임피스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점검한 후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현재 전문가 10 명으로 구성된 복원팀은 매뉴팩처의 아카이브에서 모든 워치의 스케치는 물론 오리지널 부품의 일부 모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품이 아예 없는 경우 6,000 개에 달하는 형틀 또는 각인 기록을 활용하여 같은 부품을 원형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랑 메종은 모든 워치를 자체 제작하는 통합형 매뉴팩처를 운영 중이므로 모든 복원 과정을 인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종합적으로는 기계적 복원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도 있지만 케이스 및 다이얼은 변형을 최소화한 원형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매입팀은 지나친 복원 작업으로 인해 시계 애호가들이 원하는 워치 본연의 유서 깊은 특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고 직후의 상태가 최대한 보존된 워치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모든 컬렉터블 타임피스에는 예거 르쿨트르 아카이브의 발췌본, *더 컬렉터블* 북 및 각 워치 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새로운 스트랩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능한 경우 해당 피스의 오리지널 워치 박스와 보증서, 오리지널 스트랩 또는 브레이슬릿이 함께 제공됩니다.

더 컬렉터블의 세 번째 에디션은 2024 년 10 월 11 일 싱가포르에서 출시되며 예거 르쿨트르의 제품 마케팅 및 유산 디렉터인 마티유 소레(Matthieu Sauret)가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컬렉션은 2024 년 10 월 13 일부터 23 일까지 마리나 베이 샌즈의 예거 르쿨트르 부티크에서 *더 컬렉터블* 북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https://www.jaeger-lecoultre.com) 이나 싱가포르 프레젠테이션 중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

jaeger-lecoultre.com